2022년 춘천교구 김주영 시몬 주교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요한 20,19-20)

잃어버린 평화와 우리의 상처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함께 전합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 슬픔에 잠겨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도 주님 부활의 은총으로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가고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백신 접종 유무에 따른 성당 수용 인원 제한 등으로 우리 삶의 자리는 위축되었습니다. 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겪게 된 이 일들로 우리는 원하지 않은 고립과 무의식적인 소외감에 젖어 들기도 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 누구 할 것 없이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이럴 때일수록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약속과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의와 겸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은 각 가정에서부터 배워 습득되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성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부활의 은총은 갈라져 있는 모든 이들, 상처를 주고받은 모든 이들에게 내려집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다락방에 모여 앉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에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은 고상한 철학적 사고로 이해되는 논리적 산물이 아니라, 삶 안에서 체험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체 모를 모함과 험담, 무시와 소외를 겪은 모든 분이 용기 내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상처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위안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상처는 부활의 은총이 상처 입은 이들의 것임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길 끝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평화는 그 안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부활 시기를 보내며 용서를 통한 평화를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용서는 막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나는 선명한 메시지이며, 복음을 통한 영감으로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영적 여정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에 하느님 백성 모두가 동참하여 진정한 용서의 결실인 평화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이 함께하는 「말씀살기」와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으로 부활의 기쁨과 평화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춘천교구의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주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을 빌며...

†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